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조사

이연희^{1*}, 양옥렬²

^{1,2}해전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A study on percep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bout the COVID-19 vaccine

Yeon-Hee Lee^{1*}, Ok-Yul Yang²

^{1*,2}Department of Healthcare & Medical Administration, Hyej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세 이상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구글설문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집단면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평균 3.90으로,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65.8%가 인식하고 있었으나,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35.4%가 부정적 평가를 보였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의향은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할 것이다'가 34.7%로,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백신의 이상반응'이 65.3%,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이 25.8%이었다. 또한 선진국과 저개발국가와의 백신공급을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3.94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의 연구, 플랫폼 개발 및 교육이 요구 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using Google Survey targeting 415 college students over the age of 20 to investigat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COVID-19 vaccine. As a result, the average result of 'I think the COVID-19 vaccination is necessary' for herd immunity was 3.90, and 65.8% of the 'necessity of vaccination' recognized the 'necessity of vaccination', but 35.4% negatively evaluated 'the safety of the vaccine'. showed. As for the intention to vaccinate against COVID-19, 34.7% said 'I will vaccinate as soon as the order arrives'. This showed that the current COVID-19 vaccination is not positive. As the reasons for not wanting to be vaccinated, 65.3% answered 'adverse reaction to the vaccine' and 25.8% 'distrust of the vaccine itself'. In addition, they perceived the vaccine supply betwee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s unequal, and the average was 3.94, indicating that they were afraid of adverse reactions to the COVID-19 vaccine. Therefore,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quire information about the COVID-19 vaccine, research, platform development, and education on publicity methods through the media frequently used by college students are required.

Key Words COVID-19 vaccine, Adverse reaction, Vaccination

1. 서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pandemic)을 선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하 '코로나19')[1]로 인해 전 세계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각 국가들은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엄격한 이동 통제 및 검역조치,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시

*Corresponding Author : Yeon Hee Lee(Hyejeon Univ.)

Tel: *** - **** - **** email: lyh0716@hj.ac.kr

Received June 28, 2021

Revised July 12, 2021

Accepted July 18, 2021

행하였다[2].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백신의 접종이 중요하며, 인구의 70%가 면역을 획득하는 집단 면역의 형성만이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3].

2021년 6월 20일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는 179,068,705명, 사망자 3,877,866명, 격리해제 161,867,780, 치명률 2.17%, 발생국은 221개국이며[4], 한국은 확진자 151,149명, 사망자 2,002명, 격리해제 142,899명, 치명률 1.32%, 치료중(격리중) 6,248명, 검사현황 누적검사수 10,355,634건, 누적검사완료수 10,204,572건, 누적확진율 1.5%(결과양성 / 총검사완료수*100%), 검사 중 131,062명(1.3%), 결과양성(확진) 151,149명(1.5%), 결과음성 10,053,423명(97.3%)[5]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코로나19, 즉 SARS-COV-2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서 스파이크 당단백질(spike glycoprotein)의 구조를 이용하여 숙주세포의 표면에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바이러스 변이가 이 스파이크 당단백질에 영향을 미쳐 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코로나19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 항원 추출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viral vector를 이용한 백신이 있으며, 이중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SARS-CoV-2의 spike 단백질의 전체 염기 서열을 복제 불능 원숭이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삽입된 것으로 [7],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의 유전물질을 포함한 벡터 바이러스가 인체에 들어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이 단백질인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며, 우리 몸은 만들어진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재조합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해한 단백질 항원(주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하며, 인체의 면역체계는 단백질 항원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킨다[8]. 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물질인 S 유전자를 암호화한 메신저 RNA (mRNA)를 사용하며, 94°F (-70°C)에서 운반되어야 그 생존력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9].

코로나19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6월 21일 오후 7:27 기준 총접종회분(도즈, doze)은 전 세계 2,621,055,106회분이며, 이중 중국 1,013,958,260회분, 미국 317,117,797회분, 인도 270,908,312회분, 영국 74,304,520회분, 독일 65,738,489회분, 한국 18,117,755회분, 이스라엘 10,640,916회분, 이집트 3,794,707회분, 에티오피아 1,974,476회분, 나이지리아 2,225,765회분으로 국가별로 극심한 차이가 있다[10].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2021년 6월 20일 현재, 백신접종횟수 17,943,723명, 1차접종 15,012,455명, 접종완료 4,046,611명이며 1차 접종률 28.97%, 접종완료율 7.81%[4]로 누적 접종자 수는 이미 상반기 최대 목표치인 1,400만 명을 초과하였다.

국내 허가완료 코로나19 백신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바이러스벡터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허가일2021.02.10./바이러스벡터 백신),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백신/한국화이주(주)/허가일 2021.03.05./mRNA 백신), 코비드-19백신얀센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 벡터 백신 / (주) 한국얀센 / 허가일 2021.04.07./바이러스벡터 백신),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 / (주)녹십자/허가일2021.05.21./mRNA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백신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바이러스벡터백신/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허가일2021.05.21./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총 5품목이며,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은 총 1,457만 도즈(doze)이다[11].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 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한다. 백신 접종은 의무는 아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받지 말아야 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12].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고되어 있으며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Brighton collaboration,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청(U.S. FDA) 및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KFDA) 등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9].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일반적인 이상반응으로는 접종부위의 통증, 발적, 두통, 피로감, 발진 등이 있으며, 대부분 접종 후 1~2일 이내에 발생하여 며칠 이내 사라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주요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아나필라틱쇼크, anaphylaxis)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13.7건(약 2,160만 접종 중 296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19.5건(약 3,290만 접종 중 643건) 발생을 신고(‘21.5.20일 기준), 독일에서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8.1건(약 2,133만 접종 중 173명),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인구 백만명당 7.3건(약 577만 접종 중 42명) 발생을 신고하였다(‘21.5.7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 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은 일반 혈전증과 달리 발생확률이 희박하고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뇌정맥동혈전증, 내장정맥혈전증 등과 같은 희귀혈전증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예방접종 후 4일~28일 내 발생할 수 있으며, 영국의 경우 접종 인구 100만 명 당 7.9명(0.00079%) 발생보고가 있다[13].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단, 백신 개발과정에서 임상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부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나, 추가적 임상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14]. 또한 백신에 대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예방접종 누리집,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업그레이드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1][13][14].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자가 많고, 활동 영역의 범위가 넓고 자유로우며, 대학캠퍼스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

보의 홍보 및 교육 방법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감염에 대한 성공적인 국가보건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의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자기기입의 형식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2.2 조사방법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 관한 연구의 취지와 문항을 구글설문지(Google Docs)로 작성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배포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에 응한 대상 415명의 설문 응답이 통계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일반적 특성(5문항), 코로나19 경험(2문항), 상황체크태도(1문항), 정보습득경로(1문항), 백신에 대한 인식(20문항)으로 총 29문항을 설문조사 하였다. 일반적 특성, 코로나19 경험, 정보습득경로, 백신의 종류, 백신접종 의향,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 선호하는 백신의 종류에 대한 문항은 실수와 백분율로, 나머지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 및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구글 설문 통계프로그램과 엑셀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1] 같다. 성별은 ‘남자’ 129명(31.3%), ‘여자’ 286명(68.9%)이며,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시’ 43명(10.4%), ‘경기·인천’ 91명(21.9%), ‘충청도’ 223명(53.7%), ‘전라도’ 13명

(3.1%), ‘경상도’ 31명(7.5%), ‘강원도’ 14명(3.4%)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N= 415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29	31.1
	여	286	68.9
나이	20~24세	363	87.5
	25~29세	24	5.8
	30~34세	1	0.2
	35세 이상	27	6.5
학년	1학년	185	44.6
	2학년	121	29.2
	3학년	101	24.3
	4학년	8	1.9
교통수단	도보	99	23.9
	일반버스	63	15.2
	스쿨버스	80	19.3
	기차	67	16.1
	고속버스	6	1.4
	자가용	43	10.4
	자가운전	28	6.7
	기타	29	7
거주 지역	서울시	43	10.4
	경기·인천	91	21.9
	충청도	223	53.7
	전라도	13	3.1
	경상도	31	7.5
	강원도	14	3.4

3.2 경험 및 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험 및 태도는 [Table 2]와 같다. 코로나19 현재 감염 혹은 과거 감염 경험은 ‘있다’ 4명(1%), ‘없다’ 411명(99%)이며.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본 경험으로는 ‘있다’ 160명(38.6%), ‘없다’ 255명(61.4%)이었다. 발생 상황 체크 태도는 [Table 3]과 같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매일 체크한다는 평균 3.24였으며, ‘보통이다’ 147명(35.4%), ‘그렇다’ 99명(23.9%), ‘매우 그렇다’ 68명(16.4%), ‘그렇지 않다’ 66명(15.9%), ‘전혀 그렇지 않다’ 35명(8.4%)이었다.

[Table 2] Infection and Testing Experience

[표 2] 감염 및 검사 경험 N= 415

	구분	N	%
현재 감염 혹은 과거 감염 경험	유	4	1
	무	411	99
검사 경험	유	160	38.6
	무	255	61.4

[Table 3] Check the Status of COVID-19

[표 3] 코로나19 발생 상황 체크 N= 41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발생상황 매일체크	N	35	66	147	99	68	3.24±1.16
	%	8.4	15.9	35.4	23.9	16.4	

3.3 백신에 대한 인식

3.3.1. 백신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 습득경로는 [Table 4]와 같다. ‘TV’ 261명(28.4%), ‘라디오’ 8명(0.9%), ‘인터넷포털(다음, 네이버 등)’ 228명(24.8%), ‘지인’ 66명(7.2%), ‘긴급문자발송’ 152명(16.5%),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138명(15%), 인터넷방송(유튜브, 팟캐스트 등) 54명(5.9%), ‘기타’ 13명(1.4%)이었다.

[Table 4] Paths for Obtaining Information about Vaccines

[표 4] 백신에 대한 정보의 습득 경로 N= 920

특성	구분	N	%
백신 정보 습득 경로 (복수선택)	TV	261	28.4
	라디오	8	0.9
	인터넷포털(다음, 네이버 등)	228	24.8
	지인	66	7.2
	긴급문자발송	152	16.5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138	15
	인터넷방송(유튜브, 팟캐스트 등)	54	5.9
기타	13	1.4	

3.3.2. 백신의 종류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Table 5]와 같다. ‘화이자’ 318명(33.2%), ‘아스트라제네카’ 240명(25.1%), ‘모더나’ 138명(14.4%), ‘노바백스’ 27명(2.8%), ‘얀센’ 84명(8.8%), ‘스푸트니크 V’ 14명(1.5%), ‘시노백’ 12명(1.3%), ‘시노팜’ 26명(2.7%), ‘시노박’ 8명(0.8%), ‘제품명을 알지 못함’ 91명(9.5%)이었다.

[Table 5] Type of Vaccine
 [표 5] 백신의 종류

N= 958

특성	구분	N	%
들어 보았거나	화이자	318	33.2
알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240	25.1
백신의 종류	모더나	138	14.4
(복수선택)	노바백스	27	2.8
	얀센	84	8.8
	스푸트니크 V	14	1.5
	시노백	12	1.3
	시노팜	26	2.7
	시노박	8	0.8
	제품명을 알지 못함	91	9.5

3.3.3.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

도입되는 백신의 종류는 [Table 6]과 같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제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는 평균은 2.82이었다. ‘보통이다’ 151명(36.4%), ‘그렇다’ 85명(20.5%), ‘전혀 그렇지 않다’ 75명(18.1%), ‘그렇지 않다’ 73명(17.6%), ‘매우 그렇다’ 31명(7.5%)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6] Types of Vaccine Products Introduced
 [표 6] 도입되는 백신 제품의 종류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도입되는 백신종류를 안다	N 75	73	15	85	31	2.82±1.17
	% 18.1	17.6	36.4	20.5	7.5	

3.3.4.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

백신의 감염예방에 효과에 대해서는 [Table 7]와 같다.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30이었다. ‘보통이다’ 188명(45.3%), ‘그렇다’ 119명(28.7%), ‘그렇지 않다’ 54명(13%), ‘매우 그렇다’ 42명(10.1%),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2.9%)의 순이었다.

[Table 7] Infection Prevention Effect of Vaccines
 [표 7] 백신의 감염예방효과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N 12	54	188	119	42	3.30±0.92
	% 2.9	13	45.3	28.7	10.1	

3.3.5. 백신접종의 필요성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Table 8]와 같다. 집단 면역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90이었다. ‘보통이다’ 118명(28.4%), ‘그렇다’ 144명(34.7%), ‘매우 그렇다’ 129명(31.1%), ‘그렇지 않다’ 18명(4.3%),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4%)의 순이었다.

[Table 8] Vaccination Necessity
 [표 8] 백신접종의 필요성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백신접종 필요성	N 6	18	118	144	129	3.90±0.94
	% 1.4	4.3	28.4	34.7	31.1	

3.3.6. 백신의 안전성

백신의 안전성은 [Table 9]와 같다.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2.84였으며, ‘보통이다’ 118명(43.6%), ‘그렇지 않다’ 110명(26.5%), ‘그렇다’ 57명(13.7%), ‘전혀 그렇지 않다’ 37명(8.9%), ‘매우 그렇다’ 30명(7.2%)의 순이었다.

[Table 9] Vaccine Safety
 [표 9] 백신의 안전성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백신의 안전성	N 37	110	181	57	30	2.84±1.01
	% 8.9	26.5	43.6	13.7	7.2	

3.3.7. 백신접종 의지

백신접종 의지는 [Table 10]와 같다.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할 의지가 있다는 평균 3.31이었다. ‘보통이다’ 145명(34.9%), ‘그렇다’ 106명(25.5%), ‘매우 그렇다’ 73명(17.6%), ‘그렇지 않다’ 57명(13.7%), ‘전혀 그렇지 않다’ 34명(8.2%)의 순이었다.

[Table 10] Willingness to Vaccinate
 [표 10] 백신접종 의지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백신접종 의지	N 34	57	145	106	73	3.31±1.15
	% 8.2	13.7	34.9	25.5	17.6	

3.3.8. 백신접종 의향

코로나19 백신접종 의향은 [Table 11]와 같다.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165명(39.8%),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할 것이다’ 144명(34.7%), ‘잘 모르겠다’ 91명(21.9%), ‘백신을 맞지 않겠다’ 15명(3.6%)였다.

[Table 11] Intent to Vaccinate
[표 11] 백신 접종 의향 N= 415

특성	구분	N	%
백신접종 의향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할 것이다	144	34.7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	165	39.8
	백신을 맞지 않겠다	15	3.6
	잘 모르겠다	91	21.9

3.12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Table 12]와 같다. ‘백신의 이상반응’ 14명(65.3%),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 58명(25.8%),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6명(2.7%), ‘기타’ 14명(6.2%)이었다.

[Table 12] Reasons for not Wanting to be Vaccinated
[표 12]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 N= 225

특성	구분	N	%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	58	25.8
	백신의 이상반응	147	65.3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0	0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6	2.7
	기타	14	6.2

3.3.9. 선호하는 백신의 종류

선호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Table 13]와 같다. ‘선호하는 제품 없음’ 243명(58.6%), ‘화이자’ 131명(31.6%), ‘아스트라제네카’ 22명(5.3%), ‘모더나’ 12명(2.9%), ‘얀센’ 5명(1.2%), ‘노바백스’ 1명(0.2%)이었다.

[Table 13] Preferred Type of Vaccine
[표 13] 선호하는 백신의 종류 N= 415

특성	구분	N	%
선호하는 백신의 종류	화이자	131	31.6
	아스트라제네카	22	5.3
	모더나	12	2.9
	노바백스	1	0.2
	얀센	5	1.2
	스푸트니크 V	0	0
	시노백	0	0
	시노팜	1	0.2
	시노박	0	0
	선호하는 제품 없음	243	58.6

3.3.10. 백신접종 후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후 마스크 착용은 [Table 14]와 같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는 평균 4.16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190명(45.8%), ‘그렇다’ 129명(31.1%), ‘보통이다’ 75명(18.1%), ‘그렇지 않다’ 15명(3.6%), ‘전혀 그렇지 않다’ 6명(1.4%)의 순이었다.

[Table 14] Wearing a Mask after Vaccination
[표 14] 백신접종 후 마스크 착용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백신접종후 마스크착용	N 6	15	75	129	190	4.16±0.94
	% 1.4	3.6	18.1	31.1	45.8	

3.3.11. 백신접종관련 정책의 신뢰

백신접종관련 정책의 신뢰는 [Table 15]와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국가(질병관리청)의 정책을 신뢰한다는 평균 3.07이었으며, ‘보통이다’ 201명(48.4%), ‘그렇다’ 87명(21%), ‘그렇지 않다’ 70명(16.9%), ‘매우 그렇다’ 32명(7.7%), ‘전혀 그렇지 않다’ 25명(6%)의 순이었다.

3.3.12. 백신공급의 분배

백신공급 분배에 대한 생각은 [Table 16]와 같다. 전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의 동등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평균 3.94였으며, ‘그렇다’ 138명

[Table 15] Trust in Vaccination-Related Policies

[표 15] 백신접종관련 정책 신뢰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정책의 신뢰	N 25	70	201	87	32	3.07±0.96
	% 6	16.9	48.4	21	7.7	

(33.3%), ‘매우 그렇다’ 138명(33.3%), ‘보통이다’ 120명(28.9%), ‘그렇지 않다’ 14명(3.4%), ‘전혀 그렇지 않다’ 5명(1.2%)의 순이었다.

[Table 16] Distribution of Vaccine Supply

[표 16] 백신공급의 분배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동등한 백신분배 필요	N 5	14	120	138	138	3.94±0.93
	% 1.2	3.4	28.9	33.3	33.3	

3.3.13. 백신의 양보

백신의 양보는 [Table 17]과 같다. 내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더 위급한 취약계층이나 저개발국가에 양보할 수 있다는 평균 3.59였다. ‘보통이다’ 154명(37.1%), ‘그렇다’ 111명(26.7%), ‘매우 그렇다’ 102명(24.6%), ‘그렇지 않다’ 26명(6.3%), ‘전혀 그렇지 않다’ 22명(5.3%)의 순이었다.

[Table 17] Vaccine Concessions

[표 17] 백신의 양보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백신의 양보	N 22	26	154	111	102	3.59±1.09
	% 5.3	6.3	37.1	26.7	24.6	

3.3.14. 변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

변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예방효과는 [Table 18]와 같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평균 2.95였다. ‘보통이다’ 203명(48.9%), ‘그렇지 않다’ 89명(21.4%), ‘그렇다’ 62

명(14.9%), ‘매우 그렇다’ 32명(7.7%), ‘전혀 그렇지 않다’ 29명(7%)의 순이었다.

[Table 18] Infection Prevention Effect of Vaccine against Mutated COVID-19

[표 18] 변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변이에 대한 감염예방 효과	N 29	89	203	62	32	2.95±0.98
	% 7	21.4	48.9	14.9	7.7	

3.3.15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은 [Table 19]와 같다.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3.94였다. ‘매우 그렇다’ 140명(33.7%), ‘그렇다’ 140명(33.7%), ‘보통이다’ 114명(27.5%), ‘그렇지 않다’ 12명(2.9%), ‘전혀 그렇지 않다’ 9명(2.2%)의 순이었다.

[Table 19] Fear of Adverse Reactions

[표 19]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	N 9	12	114	140	140	3.94±0.96
	% 2.2	2.9	27.5	33.7	33.7	

3.3.16 타백신과 비교한 이상반응

타백신과 비교한 이상반응은 [Table 20]와 같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기존 다른 백신(예. 독감백신)의 이상반응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05였다. ‘보통이다’ 221명(53.3%), ‘그렇다’ 76명(18.3%), ‘그렇지 않다’ 60명(14.5%), ‘매우 그렇다’ 30명(7.2%), ‘전혀 그렇지 않다’ 28명(6.7%)의 순이었다.

[Table 20] Adverse Reactions Compared to Other Vaccines

[표 20] 타백신과 비교한 이상반응 N= 415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SD
타백신의 이상반응과 유사	N 28	60	221	76	30	3.05±0.94
	% 6.7	14.5	53.3	18.3	7.2	

4. 결론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는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여주고, 중증환자발생이나 사망을 예방할 뿐 아니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또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WHO의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Tedros Adhanom Ghebreyesus)은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가 최소 85개국에서 확인되었으며, 지금까지의 변이 중 전염성이 가장 강하다고 경고하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인구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더 많은 확진자는 더 많은 입원, 보건종사자 및 체계에 대한 부담을 의미하고 이는 사망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15].

본 연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학교에 등교하는 20세 이상의 대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27일부터 2021년 6월 11일까지 자기기업의 형식으로 구글설문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본 경험으로는 '있다' 38.6%로 이중 4명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감염경험이 없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의심증상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검사를 받은 태도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매일 체크한다는 평균 3.24였으며,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40.3%로 코로나19에 대한 추이 변화에 관심이 많았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보는 'TV'(28.4%)와 '인터넷포털'(24.8%)을 통해 습득하는 경우가 53.2%였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제품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다는 평균은 2.82이었지만, 들어 보았거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화이자'(33.2%)와 '아스트라제네카'(25.1%)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이미 예방접종 시작된 백신의 종류를 각종 매체를 통해 알고 있었다. 백신의 감염예방에 효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30로 '그렇다'(28.7%)와 '매우 그렇다'(10.1%)가 38.8%였고, 백신접종의 필요성은 집단면역을 위

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90로, '그렇다'(34.7%)와 '매우 그렇다'(31.1%)가 65.8%로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2.84였으며, '그렇지 않다'(26.5%)와 '전혀 그렇지 않다'(8.9%)가 35.4%로 '그렇다'(13.7%)와 '매우 그렇다'(7.2%)의 20.9%보다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평가가 높았다.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할 의지가 있다는 평균 3.31로 '그렇지 않다'(13.7%)와 '전혀 그렇지 않다'(8.2%)가 21.9%였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의향은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할 것이다'가 34.7%로, '접종을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겠다'(39.8%), '잘 모르겠다'(21.9%), '백신을 맞지 않겠다'(3.6%)의 65.3%가 예방접종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현재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순서가 오면 바로 접종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는 '백신의 이상반응'(65.3%),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25.8%),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2.7%), '기타'(6.2%)로 이는 긴급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료된다. 선호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종류는 '선호하는 제품 없음'(58.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이자'(31.6%), '아스트라제네카'(5.3%), '모더나'(2.9%), '얀센'(1.2%), '노바백스'(0.2%) 순으로 화이자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백신보다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TV 및 언론 기사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다'는 평균 4.16로, 예방접종으로 100% 감염을 차단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감염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접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관련 국가(질병관리청)의 정책을 신뢰한다는 평균 3.07로, 백신접종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며, 국민 70%의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내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더 위급한 취약계층이나 저개발국가에 양보할 수 있다’는 평균 3.59였고, ‘전 세계에 코로나19 백신의 동등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평균 3.94였으며, ‘그렇다’(33.3%)와 ‘매우 그렇다’(33.3%)가 66.6%로 선진국과 저개발국가와의 백신공급을 불평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백신의 공공재(public goods) 제공역할 및 글로벌 협력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평균 2.95였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변이의 빠른 확산과 관련하여 백신의 교차접종 및 추가적인 부스터샷(booster shot, 면역 효과의 연장 및 강화를 위한 추가접종)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기존 다른 백신(예. 독감백신)의 이상반응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평균 3.05였으나,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평균 3.94로 ‘매우 그렇다’(33.7%)와 ‘그렇다’(33.7%)가 67.4%로 높게 조사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의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접종을 하고 있다. 전 국민 70%의 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염위험의 감소 및 중증환자 발생이나 사망예방과 같은 백신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반적인 이상반응, 중중이상반응, 희귀반응과 간의 차이점, 발생빈도 등의 정확한 정보제공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의 연구 및 플랫폼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짜뉴스, 편파보도 등과 같은 위해정보를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대상자로 확대 및 코로나19 발생 상황 및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백신정보에 따라 백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반복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1] Lee, Hee-Jung, COVID-19 Stress: Is the level of COVID-19 stress same for everybody?-Segmentation approach based on COVID-19 Stress level-, *KOREA LOGISTICS REVIEW*, Vol.30, No.4, 2020
- [2] Lyou, Byung-Woon, The Role and Limitation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focusing on COVID-19 Outbreak, *Hongik Law Review*, Vol. 21, No. 4, 2020
- [3] Jinseok Eun etc. Are Vaccines Public Goods?-The Case of US-China Hegemonic Contest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rea Studies*, Vol.25 No.1
- [4] 코로나 보드 <https://coronaboard.kr/>
-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 [6] Hojeong Park etc, 코로나19의 백신개발 동향 및 백신비축 규모에 관한 소론,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29*, Number 2, June, 2020
- [7] Pyoeng Gyun Choe, Vaccines and Treatment of Coronavirus Disease 2019,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Vol. 95, No. 6, 2020
- [8]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 <http://www.코로나19예방접종.kr/>
- [9] Hyun Mi Kang etc, Updates on Coronavirus Disease-2019 Vaccine and Consideration in Children, *Pediatr Infect Vaccine*, Vol.28 No.1, 2021
- [10]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6066227>
- [11] 식품의약품안전처(KFDA), https://www.mfds.go.kr/vaccine_covid19.jsp#
- [12]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5761667>
- [13]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18030000>
- [14] 질병관리청,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17010000>
- [15]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6_0001490413&cid=10101

References